

# 미적 소통 · 예술적 감각 공유 '시대공감' 전

‘군산대 미술학과 총동문전’ 3월 9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  
3월 13일~4월 14일 군산대 미술관서 진행... 30여명 작품 전시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가 지난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술학과 총동문전인 '시대공감' 전시를 열고 있다.

1차 전시회는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개최하고, 2차 전시회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군산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배건(한국현대미술협회 회장) 등 군산대학교 미술학과가 쌓아온 역량을 전곡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어, 대한민국과 전북 미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기능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 한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상호 소통하며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호 총장은 "41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군산대학교 미술학과가 쌓아온 역량은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면서, "시대공감전을 통해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선배배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소중한 그 무엇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정숙 미술관장은 "올해 41회 졸업생을 배출한 군산대학교 미술학과는 44년 동안 탄탄하

게 다져온 저력이 있다"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선배배 간의 미적 소통과 예술적 감각을 공유하고자 시대공감전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는 틀에 박히지 않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며 창조적 역량을 활짝 꽃피우도록 창의적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중적인 실기수업을 통해 순수예술분야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미술교사 자격을 이수하는 교직이수과정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순수미술인으로서 전업작가가 되거나 교직이수 과정을 통해 미술교사(중등2급 정교사)가 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 미술 관련 기관(뮤지컬, 전시 기획, 박물관, 공연장, 공공 교육프로그램 기획, 학교 및 주민 센터 등의 교육 강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12시까지 신입생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원서는 진학사 어플라이 또는 군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총동문전 '시대공감' 전

# 어린이 풍성한 상상력 영화에 담는다

순창군, 팔덕초등학교 15명과 '어린이 영화캠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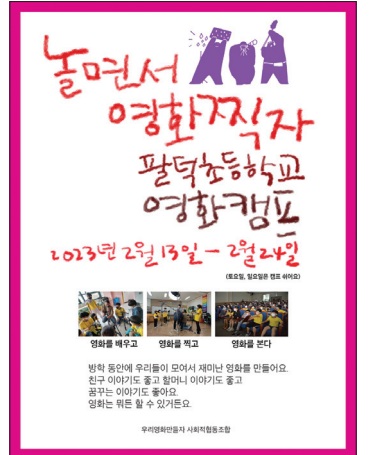
순창군은 13일부터 겨울방학이 한창인 팔덕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5명과 함께 겨울방학 프로그램 '어린이 영화캠프'를 진행한다.

어린이 영화캠프는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이 2019년부터 매년 순창군 관내 청소년들에게 영화제작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에는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학생들이 영화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시나리오 창작, 촬영과 조명 장비 조작, 영화 제작, 편집 실습 등의 내용으로 팔덕초등학교 활동실에서 매일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감독 여군동 영화감독의 총괄에 따른 시나리오 작가와 호흡을 맞추고 실제 영화 현장에서 현재 활동 중인 촬영·조명·편집 감독이 캠프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군 초등학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의지와 상상력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며 "놀이와 영화의 경계에서 아이들만의 풍성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순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주로 영화제작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고 제작한 영화는 영화제 출품과 상영회로 호평을 받아 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익산시 여성회관, 문화예술 · 전문강좌 대폭 확대

지난해까지 연 25개 → 총 68개 강좌로 2.7배 확대 운영

익산시 여성회관이 시민의 취미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및 전문강좌를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한다.

여성회관은 올해 반려식물 원예테라피, 아동 미술지도사, 첼로, 바이올린, 기타, 미니하프, 플로리스트, 타로카드, 민화, 방송댄스 등 신규 강좌를 포함한 총 68개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 정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 25개 수준의 강좌 운영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기를 되찾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됐다.

상반기 강좌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 능력 향상을 통한 폭넓은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기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반도 19개 반으로 확대 개설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외부교육장을 통해 특별 정규강좌 2과목(기초목공DIY, 후자의 세계)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로 한자지도사, 중국어, 영어, 일본어, 첼로, 바이올린, 기타, 플로리스트, 홈패션, 합창, 캘리크라피, 밸런스워킹 PT, 방송댄스 등도 진행된다.

상반기 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익산시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 신청은 익산시 거주자(강좌에 따라 양성반 포함)이며 수강료는 4만원(1만원/1개월 4주 기준)으로 재료비는 별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강료가 무료인 지원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폭 확대 운영되는 여성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 있던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교육·강좌 신청)를 참조하거나 여성회관 전화(063-859-4988, 4987)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제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 씨, 문화재청장 표창

‘문화재 재난안전 유공자’ 선정 수상

김제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 씨가 지난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23 문화재 방재의 날 시상식'에서 문화재 재난안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정덕 씨는 2017년도부터 김제시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해로부터의 문화재 안전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적극 협력하



김정덕 씨

고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 방재의 날'은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로,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군산문화도시센터, 군산시립도서관에 도서 '문화공유' 기증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는 지난 10일, 2022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한 문화공유대학과 문화공유포럼의 내용을 엮은 도서 '문화공유' (부제: 2022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기록)를 군산시립도서관에 25권 기증했다.

문화공유는 군산예비문화도시의 핵심가치인 '자(自)-공(共)-공(公)'을 '일상모임과 가치나눔' 그리고 '문화공유'로 나누고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군산을 향하여 라는 챕터로 구분하여 17개의 글을 엮은 책이다.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사업과 방향에 대한 박성신 센터장의 글과 사업의 핵심가치인 '자공공'의 개념을 주창한 조한혜정 교수의 글을 포함해 군산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여러 학자와 활동가의 생각이 담겨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이번 기증에 큰 감사를 표했으며 기증된 도서는 군산 내 다양한 도서관에 나누어 '문화공유도시, 군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공유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